ISSN 1229-07181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권 3호(2013년 9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아동 상위정서철학의 매개효과 검증 — 송수정 · 남은영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의 매개효과 — 장휘순 · 이승연

정서인지기능과 억제기능, 일반지능, 사회기능이 탈화제 발언(脫話題 發言; off-topic speech)에 미치는 효과 — 김영경 · 진영선

어머니의 정서발달 관련 신념에 따른 정서표현성 및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 신주혜 · 정윤경

일차순위와 이차순위 마음상태에 대한 아동의 이해: 발달적 격차를 중심으로 — 정진나

마음이해와 공감이 독재자 게임에 나타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권주현 · 박영신

한국발달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제26권 3호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아동 상위정서철학의 매개효과 검증 1

송수정 · 남은영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의 매개효과 19

장휘순 · 이승연

정서인지기능과 억제기능, 일반지능, 사회기능이 탈화제 발언(脫話題 發言; off-topic speech)에 미치는 효과 47

김영경 · 진영선

어머니의 정서발달 관련 신념에 따른 정서표현성 및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71

신주혜 · 정윤경

일차순위와 이차순위 마음상태에 대한 아동의 이해: 발달적 격차를 중심으로 97

정진나

마음이해와 공감이 독재자 게임에 나타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117

권주현 · 박영신

한국발달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3. Vol. 26. No. 3, 19-45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의 매개효과[1)]

장 희 순 이 승 연[2)]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을 심리적 복합외상의 하나로 간주하는 외상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변수들 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2,516명의 자기보고식 설문 자료 중 연구자가 정한 신체적 학대 기준을 충족하는 1,197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검증 결과,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 경험은 반응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크기는 다른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미치는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은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 각각의 매개를 통해서 반응적 공격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는 사회정보처리의 매개효과보다도 더 컸다. 특히 의도적 통제는 사회정보처리의 해석, 반응생성, 반응선정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 경험에 따른 반응적 공격성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과 특히, 새롭게 확인된 의도적 통제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신체적 학대, 반응적 공격성, 사회정보처리, 의도적 통제, 정서조절

1) 본 연구는 장희순의 2013년도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2) 교신저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E-mail: slee1@ewha.ac.kr

아동학대는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은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62년에 Kempe, Silverman, Steele, Droegemueller와 Silver가 최초로 피학대아동 증후군(the battered chid syndr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 계속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아동학대를 복합외상의 대표적 유형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는 외상적 관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동학대가 아동과 아동의 애착대상인 양육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간 폭력의 성격을 띠고 있고, 학대 행위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학대로 인한 부적응의 문제가 단일 외상에 기초하는 기존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진단 기준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한 일부 외상 연구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아동학대는 복합외상(complex trauma; Cook, Spinazzola, Ford, Lanktree, Blaustein, Cloitre et al., 2005),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 Adam, Sheldon Keller, & West, 1995) 혹은 발달적 외상(developmental trauma; van der Kolk, 2005)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념화되기 시작하였다.

반복적인 대인 간 외상, 즉, 복합외상의 관점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아동기 학대 경험이 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 정신생리 영역 등 심리적 영역 전반에 걸쳐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심리적 영역에서의 결함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개별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여러 영역에서의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부적응의 기제를 파악,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개별 증상 위주로 접근해 왔으며(노충래, 2002), 외상학자들이 제안한 증상들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가설만이 제안되었을 뿐, 학대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아동기 학대 경험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제를 파악하는 것은 이론적 발전뿐 아니라, 효과적 개입전략의 개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상당히 다양하지만(Burn, Jackson, Hilary & Harding, 2010; De Bellis, 2001; van der Kolk, 2005), 그 중에서도 아동학대와 공격성의 관계는 많은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을 받아왔다. 아동학대와 공격성의 밀접한 관련성은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예, Dutton, 1999, Lynch & Cicchetti, 1998),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거의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Lee & Hoaken, 2007; Tremblay, 2000). 이러한 인식과 함께 최근에는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다른 유형의 학대들에 비해 학대의 정의와 식별이 용이하기 때문에 연구자들로부터 더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아동의 공격성, 분노조절의 어려움, 외현화 문제를 일관되게 예측한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김선숙, 2007; Dodge, Bates, & Pettit, 1990; Ford, Fraleigh, & Connor, 2010; Jaffee, Caspi, Moffitt, & Taylor, 2004). 생애 초기의 신체적 학대경험은 다른 학대유형 및 다양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이후의 공격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odge et al,, 1990; Dodge, Pettit,

Bates, & Valente, 1995).

공격성 역시 남을 짜증나게 하는 것에서부터, 반사회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정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Scarpa, Haden, & Abercromby, 2010; Tremblay, 2000). 그러나 공격성이 형태 뿐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단일 개념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겨남에 따라, 공격성의 하위유형을 고려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한 예가 공격성을 기능적 차원에서 반응적(reactive) 공격성과 주도적(proactive) 공격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 때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위협이나 좌절, 혹은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방어적인 분노반응을, 주도적 공격성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는 의도적인 강압적 행동을 의미한다(Ford et al., 2010).

특히 반응적 공격성과 아동학대 간의 관련성은 많은 연구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Connor, Steingard, Anderson & Melloni, 2003; Ford, 2005). 예를 들어, Dodge, Lochman, Harnish, Bates와 Pettit(1997)의 연구에서 유치원 시기에 측정한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경험은 아동이 3학년이 되었을 때의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하였지만, 주도적 공격성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Ford 등(2010)의 연구에서도 연령, 인종, 성별, 지능, 주도적 공격성 정도를 통제했을 때에 신체적 학대의 과거력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서 반응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12배나 높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 학대에 국한하여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여전히 매우 드물다.

연구자들은 학대 받은 아동의 공격행동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외상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King(1999)과 Ford 등(2005)이 반응적 공격성이 본질적으로 아동학대와 같은 외상적 사건에 대한 노출로 인한 정신생물학적 반응성(psychobiological reactivity)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 것이나, 외상을 경험한 아동들의 공격성이 과각성과 관련된 PTSD 증상의 하나일 수 있다고 한 van der Kolk(2005)의 주장과 관련이 있다(Ford et al., 2010에서 재인용). 즉,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반응적 공격성은 정서조절의 문제와 관련되거나, PTSD의 과각성 증상이 위협 관련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처리하게 만들어 방어적 공격행동을 촉발시킴으로써 외상 경험자들의 재희생화(revictimization)를 막아주는 보호적 기능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Ford et al., 2010). 연구자들은 아동학대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 두 변인 간에 어떤 기제가 작용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해 왔으나, 학대 경험, 특히 신체적 학대가 어떻게 반응적 공격성을 야기하는지, 그 과정에서 관련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제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Lee & Hoaken, 2007).

사회정보처리(social information processing)에서의 결함은 아동학대가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것과 관련된 주요 기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정보처리 모형은 아동이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 접하게 되면 부호화, 해석, 목표 명료화, 반응탐색 및 생성, 반응선정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 행동을 하게 된다고 제안한다(Dodge, 1993).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적대적 단서에 과민할 뿐만 아니라(Pollak & Kistler, 2002), 다른 사람의 중립적 의도를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문제 상황에서 공격적 반응을 더 쉽게, 많이 생각해 내는 경향을 보이는 등 사회정보처리의 여러 단계에서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odge, Pettit, McClasky, & Brown, 1986).

Dodge 등(1995)은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이 이후 품행문제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신체적 학대 경험과 품행문제의 관계를 사회정보처리가 매개하는 간접효과를 비교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사회정보처리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켰을 때, 신체적 학대가 품행문제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크기가 33%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정보처리가 신체적 학대와 품행문제 간의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부호화, 해석, 반응생성의 사회정보처리 변수들을 인과적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시에 각각의 매개변인으로 모형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와 품행문제 사이에서 사회정보처리의 각 하위 단계들이 과연 순차적으로 작용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사회정보처리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과각성의 문제가 사회정보처리의 왜곡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대 경험 아동의 지각된 위협에 기인한 증가된 각성은 관련된 모든 정보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방해해서 상황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만들 수 있으며(Crick & Dodge, 1994), 그 결과 방어적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동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공격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과각성은 공격행동의 표현을 규제하는 자기 모니터링이나 반응 억제과정에 관여하는 능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공격적 반응을 증가시킬 것이다(Taft, Kaloupek, Schumm, Marshall, & Panuzio, 2007). 따라서 신체적 학대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정서의 생리적 측면인 각성을 조절하는 정서조절의 문제가 관여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을 보면 학대 경험 아동이 보이는 정서조절에서의 문제가 공격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한 정서조절이 인지적 과정인 사회정보처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예, 김선숙, 2007; 박서정 & 김순옥, 2005; 최지경, 2006; Kim & Cicchetti, 2010; Walton & Flouri, 2010). 이러한 불명확성은 정서 내지 정서조절에서의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서조절'이라는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정서경험, 정서표현, 정서인식, 정서상태나 공감, 더 나아가 정서조절 전략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론적 기반 또한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학대 경험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도 정서조절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역시 일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정서조절을 정서조절 곤란과 정서대처 전략의 측면으로 각각 정의한 Walton과 Flouri(2010), 김선숙(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과 아동의 품행문제 간에 정서조절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Shields와 Cicchetti(1997)가 개발한 정서조절척도(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의 경우엔 정서조절을 두 가지 하위 차원인 '정서조절'과 '부정적 정서성'으로 구분하는데, '정서조절' 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긍정적 혹은 적응적 정서조절로 명명되며, 상황에 적절한 정서표현과 공감, 정서인식 등을 잘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ERC의 '정서조절' 하위 요인을 사용한 Kim과 Cicchetti(2010)의 연구와 박서정과 김순옥(2005), 유리향(2012)의 연구의 경우, 부모의 강압적 양육과 아동의 공격행동 간에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 다른 요인인 '부정적 정서성' 요인의 경우, 기분의 변화가 심하고 불안정하며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 경우엔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서정 & 김순옥, 2005; 박혜경, 2001).

정서조절의 정의와 척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높은 각성이나 분노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성의 측면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Anderson & Bushman, 2002). 반면, 정서인식이나 정서표현, 공감과 같은 정서조절의 측면들은 공격성 내지 부정적 양육 경험과의 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다.

정서조절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이지영, 2012),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정서조절 개념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기질 연구자들이 제안한 '반응성(reactivity)' 개념과 '자기조절(self-regulation)' 개념에 주목하였다. 기질 연구자들은 기질을 반응성과 자기조절의 두 차원으로 구분한다. 반응성의 경우, 정서표현(한유진, 2006; Hubbard & Coie, 1994, 최인숙, 2009에서 재인용), 정서적 경향(Arsenio, Cooperman, & Lover, 2000, 최인숙, 2009에서 재인용), 정서적 강도(Eisenberg, Fabes, Murphy, Maszk, Smith, & Karbon, 1995, 최인숙, 2009에서 재인용)라는 용어로 기술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노, 슬픔, 두려움, 기쁨과 같은 기본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타고난 정서성(emotionality)의 측면을 의미한다(이지연 & 곽금주, 2010; 장혜인, 2010). 이러한 반응성은 환경 자극에 의해 즉각적,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유발되는 행동 및 정서 반응으로(Eisenberg & Spinrad, 2004), 비자발적 통제(involuntary control, 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 또는 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과정 등으로 명명된다(Gross, 2008).

반면, 자기조절 차원은 상황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자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소위 '정서조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장혜인, 2010). 이것은 반응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의도적(effortful or deliberate) 혹은 통제된, 의지적인, 주의를 필요로 하는 과정 등으로 명명된다(Eisenberg, Smith, Sadovsky & Spinrad, 2004). 연구자들은 이 두 과정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구분하기 힘들지만, 정서조절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Eisenberg & Spinrad, 2004).

본 연구에서는 반응성이 아니라, 자기조절적인 차원의 정서조절에 초점을 두고, Rothbart가 정서조절과 관련된 자기조절의 기초가 되는 차원으로 제안했던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 개념을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이미 다수의 연구자들이 Rothbart가 제안한 의도적 통제 개념을 정서조절의 기본 기능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예, Eisenberg & Spinrad, 2004; Morris, Silk, Steinberg, Sessa, Avenevoli, & Essex, 2002). Rothbart에 따르면, 의도적 통제로 대표되는 자기조절은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 또는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과 하위 반응을 활성화하고 계획하고 실수를 발견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실행 주의력(executive attention)의 효율성'으로 정의되며(Rueda, Posner, & Rothbart, 2004), 좀 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과정이다. 의도적 통제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은 발달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흔히 주의조절(attention regulation)과 억제적 통제(inhibitory control)로 구성되고, 연구자에 따라 활성화적 통제

(activation control)를 포함시키기도 한다(한영숙, 2010). 주의조절은 필요한 때에 자발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거나 이동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억제적 통제는 의식적으로 적절하게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활성화적 통제는 내키지 않을 때에도 필요하다면 행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Eisenberg & Spinrad, 2004).

의도적 통제는 주의조절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아주 어린 연령의 유아들의 경우 주의를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아름 & 방희정, 2011). 이 때문에 유아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 통제 연구들에서는 실행 주의력을 측정하는 과제만을 사용하여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였다. 아동 중기 이후가 되면, 실행 주의력이 더욱 발달하는 것은 물론, 억제적 또는 활성화적 통제와 같은 다양한 측면의 의도적 통제 능력이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Muris, Meesters, & Blijlevens, 2007),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 통제 연구에서는 주의조절뿐 아니라, 억제적 통제, 활성화적 통제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의도적 통제와 실행 주의력과의 관련성은 학대 경험 아동들의 정서조절에서의 어려움이 주의조절 곤란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주장(Shields & Cicchetti, 1998)과도 상통한다.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조절에서의 어려움은 주의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는데(Meersters, Muris, & van Rooijen, 2007), 학대 및 외상 경험자들의 경우 주의집중이나 주의전환의 어려움, 더 나아가 상황과 과제에 따라 자신의 주의와 행동을 억제하거나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많은 수의 학대 경험 아동들이 ADHD로 진단받거나 주의력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진화, 2010; Herman, 1992). 학대 경험 아동들이 보이는 이러한 문제들은 의도적 통제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되는 주의조절, 억제적 통제, 활성화적 통제 개념들과 상당 부분 연결된다.

의도적 통제는 부모의 양육과 같은 환경적 영향과 이후의 문제 행동을 매개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한영숙, 2010; Chang, Olson, Sameroff, & Sexton, 2011), 지금까지 학대 경험 아동들의 공격성 문제를 의도적 통제와의 관계에서 설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다만, Robinson 등(2009)이 12~47개월의 학대 받은 어린 유아들과 그들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나타난 유아의 반응성과 의도적 통제 능력을 일반 집단과 비교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조사 결과, 학대집단의 유아들은 비학대 집단의 유아들과 비교해서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반응성 수준이 더욱 높았고, 특히 학대집단의 유아들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만족지연을 잘 하지 못하거나 주의 전환을 잘 못할수록, 즉 의도적 통제 능력이 좋지 않을수록, 더 많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봤을 때, 학대적 양육이 이후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정보처리뿐만 아니라 정서조절, 즉, 의도적 통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사회정보처리와 정서조절 두 변수 간의 관계이다. 지금까지는 이 둘의 관계에 대해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사회정보처리에 관한 개념이 처음 소개된 이후에 Crick과 Dodge(1994)가 전체 과정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로서의 정서를 사회정보처리 모형 안에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정작 정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후 Lemerise와 Arsenio(2000)가 정서적 요인이 포함된 통합 사회

정보처리 모형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아동이 적대적인 귀인편향이나 공격적 목표 설정, 공격적 반응생성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렇게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사회정보처리와 정서의 이론적 통합이 시도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이 둘은 사실상 개별적으로 연구되었을 뿐, 정서조절이 사회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매우 적고, 그 결과 역시 비일관적이었다(예; 김지현, 2006; De Castro, Merk, Koops, Verman, & Bosch, 2005).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보처리와 정서조절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단서를 정서조절의 한 측면인 의도적 통제에 주목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의도적 통제가 분노와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데 세 가지 경로가 있음을 제안한 Wilkowski와 Robinson(2010)의 연구이다. 이들이 제안한 세 가지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도적 통제가 적대적 상황에서 비적대적인 정보들을 검토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의도적 통제가 반추적인 주의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적대적인 생각들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의도적 통제가 공격적 행동을 하려는 경향을 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의도적 통제가 사회정보처리의 해석, 반응생성, 반응선정 단계와 같은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격성이 행동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서조절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의도적 통제가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신체적 학대, 반응적 공격성, 사회정보처리 그리고 의도적 통제 사이의 가설적 관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학대 경험으로 인해 불안 수준이 높거나 과도하게 각성된 아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의사결정과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단서들에 골고루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위협 관련 단서들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주의편향을 나타낼 것이고, 그 결과 사회정보처리에서의 왜곡을 보이게 될 것이다. 즉, 불충분한 정보와 과거 학대 경험에 의해 형성된 도식 등에 근거해서 거의 자동적으로 내린 판단은 상대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만들어 분노를 유발하고, 반응적인 공격적 반응을 더 많이 생각해내도록 할 것이다. 이때 행동을 억제하거나 활성화시키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아동은 자신의 분노를 직접 행동화하게 될 것이다. 즉, 사회정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의 각 단계마다 주의조절 능력과 자동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좀 더 바람직한 행동이나 대안을 활성화시키는 능력과 같은 자기조절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자기조절 능력들은 Rothbart의 의도적 통제 개념에 해당하며, 따라서 의도적 통제가 사회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은 신체적 학대 경험이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사회정보처리와 의도적 통제 각각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 그리고 의도적 통제가 사회정보처리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가 다시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포함한다. 또한, 공격적 행동을 설명할 때 사회정보처리 모형이 제안하는 순차적 처리과정을 반영하여(Crick & Dodge, 1994), 해석, 반응생성, 반응선정의 세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때 1단계인 부호화 단계는 해석 단계와 연결고리(feedback)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Dodge & Frame, 1982) 따로 분리하는 것이 어려워 생략하였다. 그리고 공격적인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공격적 반응을 더 많이 생각해낸다는 점(손지영,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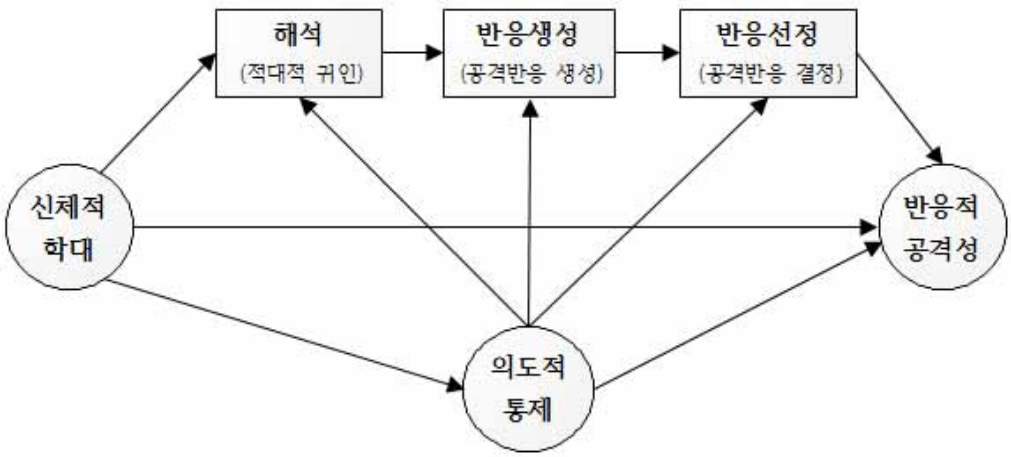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과 반응선정 단계에서의 아동의 반응이 이후 공격 반응에 대한 좋은 예측치가 된다는 점(Crick & Dodge, 1994)을 고려하여 반응생성과 반응선정 두 단계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아동기 신체적 학대 경험이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5), 경기(1), 부산(5), 충남(1), 대전(1) 지역 총 13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학생들 중, 자녀의 연구 참여에 대한 학부모 동의가 있었던 2,516명(총 2,700부 중 약 93%)에 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87부(3%)를 제외하고 2,429명의 자료 중에서 신체적 학대에 대한 연구자의 기준을 만족시킨 학생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즉, 신체적 아동학대 척도 문항 중 가벼운 체벌에 해당하는 1번~3번 중 어느 하나의 문항에서라도 3점 이상(3: 3~4개월에 한 번, 4: 1달에 1~2번, 5: 일주일에 한 번 이상)에 응답했거나 혹은 심한 체벌 및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4번~11번 문항에서 어느 한 문항에라도 2점(1년에 1~2번) 이상에 응답한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기존의 아동학대 관련 연구에서는 어느 하나의 문항에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들을 모두 포함시켜 학대집단으로 정의를 하였으나, 이렇게 할 경우 가정에서 훈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경미한 수준의, 일회성 폭력 행위도 학대 행위로 간주하게 되어 학대 경험 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심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 행위만을 외상 경험으로 간주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 1,197명(49%)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신체적 아동학대 척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신체적 학대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척도는 Straus(1979)의 갈등전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 CTS) 중 신체적 폭력 하위 척도이다. 그렇지만 CTS는 본래 부부 간에 일어나는 부부 폭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로, 이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 행위 측정에 확대 사용되어 왔을 뿐이다. 게다가 CTS는 개발된 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문제점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한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CTSPC(Parent-to-Child Version of the Conflict Tactics Scales; Straus, Hamby, Finkelhor, Moore, & Runyan, 1998)를 사용하였다.

원래 CTSPC는 부모의 자기보고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부모에게서 경험한 신체적 폭력을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진술문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미한 체벌 문항 중 우리 문화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문항(아이를 꼬집는다)을 제외한 후, 본 연구자와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심리학 전공 석사생 1인이 원문을 번역한 뒤, 발달심리학 전공 교수의 검토를 거쳐 11개 문항을 최종 결정하였다. CTSPC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아동 자신이 지난 1년 간 경험한 정도를 '1=전혀 없었다', '2=1년에 1~2번', '3=3~4개월에 1~2번', '4=1달에 1~2번', '5=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되며,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이 심각함을 나타낸다. 선행연구들에서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α =.55~.93 범위에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α= .83이었다.

사회정보처리 척도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사회정보처리 평가에 적절한 일화를 선정하기 위하여 1980~2011년 사이 발표된 국내외 18개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연구들에서 사용된 일화들을 종합한 뒤, 손지영(2001)의 제안대로 도발적 상황, 진입거부 상황 및 이 두 가지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상황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일화들 중, 학교 장면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면서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적절한 자극을 알아내기 위해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4~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4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이야기는 모두 6개였으며, 이 가운데에서 본 연구자와 발달심리학 전공 교수 1인의 검토를 거쳐 도발상황과 진입거부 상황에 각 2개씩의 일화를 최종 선정하였다. 도발상황으로는 그리기 이야기와 공 이야기가, 진입거부 상황으로는 산책 이야기와 대화에 끼워주지 않는 이야기가 포함되었다. 선정된 일화마다 상대의 의도에 대한 귀인을 묻는 해석 관련 문항, 각 상황에서 가능한 말이나 행동을 최대 5개까지 자유 기술하도록 한 반응생성 문항, 그리고 생성된 반응 중 실제로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항을 선택하는 반응선정 문항이 포함되었다.

각 단계에 대한 응답 방식 및 채점은 손지영(2001)이 사용한 방식을 따랐다. 해석 단계에 대한 평가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1=나쁜 마음이 아니었다'~ '4=매우 나쁜 마음으로 그랬다'의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전체 4개 일화의 합산 점수의 평균을 구해 해석 단계의 평가치로 사용하였다. 평균이 높을수록 아동이 타인의 행동에 대해 적대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응생성은 공격적 반응에 대해 1점, 그렇지 않은 반응에 대해 0점을 부여하였다. 전체 공격반

응생성은 아동이 생성한 전체 반응 수 중 공격적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값이 클수록 아동이 생각해 낸 전체 반응 가운데 공격적 반응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반응선정은 아동이 생성한 반응 가운데 스스로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응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선택된 반응이 공격적 반응일 경우엔 1점, 그렇지 않은 반응인 경우엔 0점을 부여하였다. 합산된 값이 클수록 공격적 반응을 더 많이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의도적 통제 척도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Eillis와 Rothbart(2001)가 개발한 EATQ-R(Early Adolescent Temperament Questionnaire-Revised)의 하위 척도 중 의도적 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의도적 통제는 '주의(attention)', '억제적 통제(inhibitory control)', '활성화적 통제(activation control)' 의 3요인,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척도를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심리학 전공 학부생과 석사과정 학생 2인이 이중 역번역한 후,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원래의 3요인 모형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발달심리학 및 방법론 전공교수들과의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원척도에 포함된 일부 문항들의 경우 해당요인이 측정하고자 했던 본래의 구성개념을 다소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이를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아동들에게 원래 의미와는 다른 식으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3요인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요인의 구성개념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13개 문항들을 재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재선정된 문항들에 대해서 본 연구를 위해 표집된 2,429명의 자료 중 무작위로 선정된 1,200명의 표본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χ^2 =288.394, df=66, p < .001, TLI=.923, RMSEA=.054 [90% 신뢰구간: .048~.061]), 재선정된 문항들은 1개 문항을 제외하고 원척도와 동일 요인에 포함되었다. 예외적인 1개 문항의 경우는 원래 주의 요인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추후 검토 과정에서 활성화적 통제 요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의도적 통제 전체 척도의 내적신뢰도는 Cronbach′ s α=.80, 하위요인인 활성화적 통제는 α=.75, 억제적 통제는 α=.68, 주의는 α=.70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부정형 문항은 역채점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적 통제 능력이 더 우수함을 의미한다.

반응적 공격성 척도

반응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영경(2008)이 번안한 Marsee, Kimonis와 Frick(2004)의 또래갈등척도(Peer Conflict Scale: PCS)를 문항표현을 자연스럽게 다듬기 위해 조지영(2011)이 재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PCS는 반응적-주도적 차원과 외현적-관계적 차원의 2개 차원의 조합으로 구성된 4개 하위요소로 구성되며, 하위요소들은 각각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적 공격성에 해당하는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의 20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4=언제나 그렇다'의 4점 척도 상에 평정되며, 각 공격성 요인의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Marsee와 Frick(2007)의 연구에서 반응적 외현적, 반응적 관계적 척도의

Cronbach's α는 각각 .87과 .8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87, .83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2011년 11월~12월 한 달 동안 예비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동일한 척도들의 순서를 달리하여 3가지 유형으로 제작한 뒤, 2012년 3월~5월 동안 전국 5개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 설문지는 학급 또는 학교 단위로 배부되었으며, 사전에 학교를 통해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를 학부모들에게 전달한 뒤, 자녀의 설문 참여를 허락한 학부모의 자녀들에 한해서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20~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아동들이 주위 반응이나 시선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떨어져 앉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SPSS 19.0 프로그램으로 연구대상 아동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이와 관련된 기술 통계치를 조사하고, 연구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와 같은 기술통계치와 변수들 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 다음으로 연구 모델에 대한 검증을 위해 AMOS 19.0, Mplus 6.0 프로그램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에 대한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값,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고려하였다. 모형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는 그 값이 대략 .90 이상인 경우, 그리고 RMSEA는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델로,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델로 해석하였다(홍세희, 2000).

본 연구모형의 경우, 일차 매개뿐만 아니라 이차 이상의 매개효과를 포함하고 있어 정상성 가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수집된 자료에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Mplu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1,000번의 bootstrap 표집을 추출하고, 95%의 신뢰구간을 계산하여 신뢰구간이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였고, 이 때 bias-corrected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들(n=1,197)은 남아 619명(51.7%), 여아 525명(46.4%)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6학년 아동(735명, 61.4%)이 5학년 아동(462명, 38.6%)보다 약 20% 정도 더 많았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부모님은 남녀 모두 연령이 40대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77.9%), 교육정도는 부/모 모두 고졸(부:41.3%, 모: 53.4%), 대졸(부: 36.5%, 모: 23.4%)의 순으로 높았다. 아동의 87.7%는 부모님 모두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0.0%는 한쪽 부모님하고만 산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직업을 자유 기술 형식으로 진술하도록 하였으나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응답하였더라도 내용이 모호하여 분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므로 SES의 지표로 사용하기 어려웠

표 1 주요 연구변수들의 기술 통계치

	변수	가능한 점수 범위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신체적 학대	학대	11~55	12~48	16.67	5.09	2.34	6.79
사회정보처리	해석	1~4	1~4	2.09	.64	.63	.05
	반응생성	0~1	0~1	.36	.24	.31	-.67
	반응선정	0~4	0~4	1.19	1.22	.77	-.44
의도적 통제	활성화적 통제	5~20	5~20	14.52	3.20	-.37	-.15
	억제적 통제	6~36	7~30	22.15	4.25	-.23	-.18
	주의	3~15	3~15	9.54	2.52	-.10	-.17
반응적공격성	반응적 외현적	10~40	10~37	10.70	2.76	-.55	.03
	반응적 관계적	10~40	10~38	13.48	4.26	1.94	4.50

주. 해석=적대적 귀인의 합, 반응생성=공격반응생성비율, 반응선정=공격반응 결정 총합

표 2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신체적 학대	1. 학대	1								
사회정보처리	2. 해석	.12**	1							
	3. 반응생성	.13**	.40**	1						
	4. 반응선정	.11**	.42**	.75**	1					
의도적 통제	5. 활성화적 통제	-.17**	-.12**	-.15**	-.18**	1				
	6. 억제적 통제	-.18**	-.17**	-.14**	-.19**	.13**	1			
	7. 주의	-.11**	-.15**	-.12**	-.13**	.52**	.42**	1		
반응적공격성	8. 반응적 외현적	.26**	.24**	.30**	.31**	-.32**	-.40**	-.24**	1	
	9. 반응적 관계적	.20**	.24**	.29**	.34**	-.34**	-.39**	-.23**	-.65**	1

** $p < .01$

다.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지리적 특성을 토대로 하였을 때, 대략 2개 학교는 SES 상, 8개 학교는 중, 3개 학교는 하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 연구변수들의 기술통계

아동의 신체적 학대, 사회정보처리의 세 하위과정, 의도적 통제의 세 개 하위요인, 그리고 두 가지 유형의 반응적 공격성, 이렇게 총 10개 변수들의 가능한 점수범위와 평균, 표준편차, 첨도와 왜도를 산출하였다(표 1). 변수의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SPSS에서 산출된 첨도의 절대값에 3을 더해 10을 넘지 않아야 하고, 왜도의 경우 절대값이 3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던 Kline(2005)의 기준대로, 본 연구에 포함된 개별 측정변수들은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켰다.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상관분석 결과(표 2), 신체적 학대는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r =.26, p < .01),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r =.20, p < .01)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는 의도적 통제의 세 요인 모두와 경미하지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 =-.11~-.18, p < .01). 사회정보처리를 구성하는 세 단계와는 경미하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11~r =.13, p < .01). 사회정보처리의 세 단계는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r =.24~.31, p < .01),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r=.24~.34,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의도적 통제의 세 요인들과는 경미한 수준의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12~-.19, p<.01).

마지막으로, 의도적 통제의 세 요인과 반응적 외현적(r =-.24~-.40, p < .01),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 =-.23~-.39, p < .01).

신체적 학대, 사회정보처리, 의도적 통제 및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 적합도 분석

연구변수들 간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는 의도적 통제와 반응적 공격성이며, 의도적 통제는 3개 측정변수(주의, 억제적 통제, 활성화적 통제), 반응적 공격성은 2개 측정변수(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로 구성된다. 이 같은 측정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χ^2=39.695(df=4, p < .001), TLI=.949, CFI=.069, RMSEA=.086[90% 신뢰구간: .063~.112]으로 나타났다. 홍세희(2000)의 모형적합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적합도 지수 중 RMSEA가 기준인 .08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χ^2, TLI, CFI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대체로 수용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조모형 적합도 분석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이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변수들에 대한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2= 121.672(df=21, p < .001), TLI=.948, CFI=.970, RMSEA=.063(90% 신뢰구간: .052~.074)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과 각 계수의 모수추정치 및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신체적 학대에서 반응적 공격성에 이르는 직접경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16, p < .001). 한편, 신체적 학대에서 사회정보처리의 해석 단계로 가는 경로(β=.07, p < .05), 해석 단계에서 반응생성 단계로 가는 경로(β=.37, p < .001), 그리고 반응생성에서 반응선정 단계로 가는 경로(β=.75, p < .001), 마지막으로, 반응선정 단계에서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β=.26, p < .001)의 계수들이 모두 유의미하였다. 또한 신체적 학대에

표 3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추정치	95% 신뢰구간
전체 매개 효과	신체적 학대	<	해석, 반응생성, 반응선정, 의도적 통제	>	반응적 공격성	.016	.130	.059 ~ .116
개별 매개 효과	1. 신체적 학대	→	해석→반응생성 →반응선정	→	반응적 공격성	.002	.005	.001 ~ .008
	2. 신체적 학대	→	의도적 통제	→	반응적 공격성	.014	.110	.048 ~ .104
	3. 신체적 학대	→	의도적 통제→해석 →반응생성 →반응선정	→	반응적 공격성	.001	.003	.001 ~ .004
	4. 신체적 학대	→	의도적 통제 →반응생성 →반응선정	→	반응적 공격성	.001	.006	.002 ~ .007
	5. 신체적 학대	→	의도적 통제 →반응선정	→	반응적 공격성	.001	.004	.002 ~ .006
기타 매개 효과	6. 신체적 학대	→	의도적 통제	→	해석	.001	.047	.003 ~ .009
	7. 의도적 통제	→	해석→반응생성 →반응선정	→	반응적 공격성	.005	-.015	-.033~-.013

서 의도적 통제에 이르는 경로계수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23, p < .001),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자기조절적인 정서조절 능력인 의도적 통제 능력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도적 통제에서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계수도 유의미하였다(β=-.48, p < .001).

한편, 의도적 통제에서 사회정보처리의 세 단계에 이르는 경로계수들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의도적 통제 능력이 우수할수록 해석 시 적대적인 해석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 p < .001). 또한, 의도적 통제 능력이 높을수록 공격적인 반응을 덜 생각해 내며(β=-.12, p < .001), 공격적인 반응을 선택하는 경향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10, p < .001).

매개효과 검증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경험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다양한 간접경로들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표 4).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가 여러 개이므로, 전체 매개변수들의 간접효과의 총합의 유의성을 먼저 검증하고, 그 다음으로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유의성에 대한 판단은 매개효과의 95% 신뢰구간을 계산한 뒤,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 학대에서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사회정보처리의 세 단계(해석, 반응생성, 반응선정)

와 의도적 통제에 의해 매개되는 모든 간접 경로들의 전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특정 매개경로별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을 때, 신체적 학대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가 매개하는 경로(2번)의 매개효과가 .11로 나타나 그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가 의도적 통제를 거친 다음 사회정보처리의 하위 단계를 통해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세 개의 간접 경로들(3번, 4번, 5번) 및 사회정보처리의 세 단계가 신체적 학대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경로(1번)도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신체적 학대가 사회정보처리를 통해서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에서 사회정보처리의 첫 단계인 해석 단계의 경로계수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신체적 학대가 의도적 통제의 매개를 거쳐 해석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6번)의 계수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원래 신체적 학대와 해석 사이의 단순상관이 .12($p < .01$)였던 것에 비해, 신체적 학대와 해석 단계 간의 직접 효과는 .07로 감소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6번)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신체적 학대가 사회정보처리의 해석 단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의도적 통제가 상당 부분 약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도적 통제가 직접적으로 반응적 공격성을 약화시키는 정도와 의도적 통제가 사회정보처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반응적 공격성을 약화시키는 정도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7번). 그 결과, 의도적 통제가 직접적으로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크기는 -.48(그림 2)이고, 의도적 통제가 사회정보처리를 거쳐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015로 나타나, 의도적 통제가 직접적으로 반응적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사회정보처리를 통해 반응적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정도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에 따른 부적응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다루어 왔다. 반면, 외상학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이러한 문제들 간의 이론적인 관계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론적 가정을 직접 검증하거나 확인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였다. 또한, 학대 경험 아동들의 부적응 문제에서 심리학 분야의 오랜 정설대로 인지적 과정과 정서적 과정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설 역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정서조절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이를 측정하는 방법 역시 매우 다양하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아동학대와 정서조절, 그리고 공격성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아동학대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증가된 각성과 분노와 관련된 반응성의 문제, 즉 자동적이며,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신경생리적 과정에서의 조절 문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수동적인 반응성 차원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정서조절 문제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기는 발달 과정 상 의식적인 자기조절 능력이 더욱 발달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자기조절에서의 문제는 다양한 적응상의 어려움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대 경험

아동들의 정서조절을 정의하는 데 있어, 단순한 반응성의 차원보다 정서조절의 자기조절적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이와 관련된 의도적 통제 개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신체적 학대가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가 매개하는 가설적인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으며, 이 때 의도적 통제가 인지적 과정인 사회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먼저, 상관분석 결과,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학대 경험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 정도는 증가하였고, 의도적 통제는 감소하는 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의 의도적 통제 능력이 낮을수록 반응적 공격성과 사회정보처리에서의 문제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경험 아동의 공격성 및 이와 관련된 여러 변수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여 적절한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신체적 학대는 반응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는 다른 간접 경로의 효과를 다 합친 것보다도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 혹은 공격성 문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한 많은 연구들과 일치하며(한영숙, 2010; Cicchetti, Ackerman, & Izard, 1995), 반응적 공격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체적 학대의 발생 비율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는 다른 선행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관련 변수들의 매개를 통해 여러 경로로 아동의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영숙, 2010; Chang et al., 2011).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이 반응적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가 각각 매개하는 간접경로 이외에도, 신체적 학대가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의도적 통제가 사회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쳐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간접경로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의도적 통제는 신체적 학대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학대 경험이 의도적 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응적 공격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β=.110)는 전체 간접 효과(β=.130)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사회정보처리 변수들의 매개효과(β=.004)보다도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체적 학대 경험으로 인한 사회정보처리에서의 문제보다 정서조절의 한 측면인 의도적 통제에서의 어려움이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에 훨씬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아동의 공격성 문제 및 아동학대와 공격성의 관계를 설명해 온 선행연구들이 주로 아동의 사회정보처리에서의 결함, 즉, 인지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정서는 단지 부차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점과 크게 차별화된다.

의도적 통제가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본 연구의 발견은 학대 경험 아동의 정서조절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동안 학대경험과 아동의 부적응 또는 정신병리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던 많은 연구들은 연구자들마다 명확한 이론적 배경이나 근거 없이 정서조절이라는 틀 아래 평상시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

는 능력 등 매우 다양한 관련 개념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뿐 아니라, 반응성 차원과 자기조절적 차원을 구분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정서조절 변수는 학대 경험 아동들의 공격성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즉,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 왔던 정서조절의 다양한 측면들로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 간에 정서조절에서의 차이가 나지 않았거나 이들의 공격성이 정서조절 능력에서의 결함으로 잘 설명되지 않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정서조절을 의식적인 자기조절적 측면이 강조된 의도적 통제로 접근했을 때,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는 명확하였다.

이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들과 달리 아무런 위협 자극이 없을 때에도 높은 각성 상태를 경험하며, 이러한 과각성된 상태를 스스로 빨리 조절할 수 없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전자는 만성적인 학대로 인한 생리적 조절체계에서의 변화가 가져온 반응성 문제(Kim & Cicchetti, 2010; van der Kolk, 2005)이며, 후자는 불안하고 각성되었을 때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주의와 사고를 조절해서 정서를 조절하는 의도적 통제에서의 어려움과 관련된다(Lonigan & Phillips, 2001).

즉,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반응적 공격성은 높은 각성 상태에서 좀 더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의와 사고,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정서를 조절하는 차원인 의도적 통제에서의 결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기 학대와 같은 복합외상 피해 아동의 정서조절 문제를 다룰 때, 정서조절의 반응성 차원과 의도적 통제 차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Muris와 Ollendick(2005), Muris, Meesters, & Rompelberg(2006)는 신경생리적 조절체계 이상으로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과잉각성이나 불안 등 반응성 차원을 통제한 이후에도 낮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가 외현화 문제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즉, 반응성 수준과는 상관없이 의도적 통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반응적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 문제를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적인 생리적 조절체계의 영향을 받는 반응성은 의식적, 인지적으로 조절하기 어렵고, 치료적 개입으로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반면, 의도적 통제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애 초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 아동 중기 이후 급격히 발달하며, 심리치료와 같은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변화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Eisenberg et al., 2005; 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따라서 외상 경험으로 인해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료할 때, 반응성 차원보다는 의도적 통제 차원에 개입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특히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반응적 공격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정보처리가 신체적 학대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간접경로의 경우, 매개효과의 크기는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크기보다 작았지만, 매개효과는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공격성 문제를 매개하는 데 있어 사회정보처리에서의 문제를 강조하였지만, 사회정보처리 모형이 본래 가정했던 각 단계들의 순차적 처리 과정을 고려한 경우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학대 경험 아동들이 사회정보처리 과정 중 해석, 반응생성, 반응선정의 세 단계에서 흔히 어려움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세 단계가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신체

적 학대 경험은 사회정보처리의 세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경험 아동의 사회정보처리에서의 문제가 이후 공격성을 매개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긴 하지만(Crick & Dodge, 1994; Dodge et al., 1990; Hubbard, McAuliffe, Morrow & Romano, 2010),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흔히 사회정보처리의 특정 단계의 개별적 매개효과만 고려했던 점과는 차별된다. 이러한 순차적 처리 과정은 해석에서 반응생성으로 가는 경로계수의 크기보다는 반응생성에서 반응선정으로 가는 경로계수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즉, 사회정보처리는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누적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회정보처리의 간접 매개경로에서 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에서 사회정보처리의 첫 단계인 해석 단계로 가는 경로계수의 크기가 매우 미미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체적 학대경험이 적대적 귀인편향을 야기하는 과정에서 의도적 통제가 개입하게 되면, 신체적 학대가 해석단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되며, 따라서 이 역시 신체적 학대 경험으로 인한 반응적 공격성의 문제를 다룰 때, 사회정보처리뿐 아니라 의도적 통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통제가 사회정보처리의 세 단계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Wilkowski와 Robinson(2010)의 주장을 지지한다. 의도적 통제는 사회정보처리의 세 단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석 단계이다. 해석 단계는 거의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부호화 단계를 제외하고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초기 단계에 해당되며, 다른 단계들보다도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선영, 2000; Crick & Dodge, 1996; De Castro et al., 2005). 따라서 해석 단계에서부터 의도적 통제가 적대적 정보에 대한 선택적 정보처리를 막고, 비적대적인 정보들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한다면, 추후 단계들로까지 잘못된 정보처리가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차적 처리과정을 검증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약 초기에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적대적인 귀인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인 반응을 생각해 냈다고 할지라도, 적절한 의도적 통제 능력이 있다면, 여전히 최종 단계에서라도 공격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 역시 기존 연구자들이 아동의 공격성 문제를 설명할 때 사회정보처리와 같은 인지적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것과는 달리, 정서조절의 역할, 그 가운데에서도 의도적 통제의 측면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의도적 통제가 사회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껏 심리학자들이 가정했던 정서가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신체적 학대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 각각의 매개경로 및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의도적 통제가 사회정보처리를 거쳐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이중매개경로들(3~5번)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결과 역시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다.

즉, 신체적 학대는 의도적 통제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고, 의도적 통제의 어려움은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왜곡과 편향을 야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또한 반응적 공격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와 공격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별 변수의 매개효과만을 고려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대 경험 아동들의 공격성 문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전체적 관련성 및 인과적 방향성 등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대 경험 아동들의 반응적 공격성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개입전략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 학대 경험 아동들의 공격성 문제는 매우 병리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외상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학대 경험 아동들의 공격성 문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격성이 아니라, 학대적인 환경 안에서 지각된 위협에 의해 촉발된 자기보호적인 방어적 행동이자, 학대 경험의 영향으로 인한 인지적 왜곡과 정서조절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학대 경험 아동의 공격성 문제를 이해하는 관점의 변화와 더불어, 공격성 문제에 기여하는 아동의 문제 영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공격성을 야기하는 기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을 감소시켜 적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정보처리에서의 오류 뿐 아니라, 동시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적 통제능력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특히, 의도적 통제는 자동적이거나 반응적인 과정이 아니며, 설령 초기의 학대 경험으로 인해서 높은 수준의 반응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천적인 치료와 훈련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의도적 통제는 반응적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사회정보처리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의도적 통제가 반응적 공격성을 낮추는 직접적인 영향의 크기(β =-.48)는 의도적 통제가 사회정보처리를 거쳐 간접적으로 반응적 공격성을 낮추는 정도(β =-.02) 보다 훨씬 강력하였다. 따라서 학대 경험 아동의 공격성을 낮추는 데 있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사회정보처리 문제의 개선이 아니라, 의도적 통제 능력의 향상에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각성된 상태에서도 상황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의식적으로 적절하게 주의와 행동을 억제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각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치료적 접근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의도적 통제 능력은 반복적인 외상 경험에 의한 신경생리적 조절체계의 이상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높은 반응성에 압도되어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없는 복합외상 피해자들에게 있어 특히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의도적 통제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논의, 그리고 이 개념에 기초한 임상적 치료프로그램의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학대로 인한 부적응적 문제가 다양하고, 이러한 문제에 기여하는 요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의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크고도 직접적인 원인은 신체적 학대 경험 그 자체였다. 따라서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에

대한 추후 개입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 예방 교육이나 올바른 훈육을 위한 부모 교육 같은 예방적 활동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아동학대 관련 연구자들이 주로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대 경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아동들이 대다수 포함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것과 달리, 대규모 표집을 통해서 연구 목적에 좀 더 적합한 대상을 다수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 변수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조작적으로 정의, 측정함으로써 신체적 학대가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보다 다양한 간접 경로들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여러 변수들 사이의 인과적 방향성과 관계에 관한 새로운 정보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큰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정서조절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도 의도적 통제가 인지적 과정인 사회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 것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학의 영역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통제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시켜줌으로써 학대 경험 아동의 정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 것은 물론 치료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물론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제한점 역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을 정의함에 있어 의도적 통제라는 새로운 개념에 주목하고, 이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척도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의도적 통제의 원척도를 한국어로 번안,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항들이 생략되었다. 이 문제는 추후 의도적 통제의 구성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구성개념을 보다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심리측정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대 경험 아동의 반응성 측면을 통제하지 못하였는데, 반응성의 경우 뇌파나 심박 수 변화 같은 실제 생리적 측정치를 통해 잘 확인되는 만큼 이후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의 반응성 측정에 있어 이러한 생리적 정보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는 생태학적 특성 상 한 가지의 학대 유형만이 개별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학대 유형들이 동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상, 중복학대 경험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중복학대 경험 및 다른 유형의 학대 경험 아동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에는 학대의 유형과 이후의 문제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 이외에도 다양한 학대 유형별로 독특한 특성이나 이후의 발달경로 상의 차이와 같은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김선숙(2007).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2**, 65-95.

김지현(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진화(2010). 아동기 외상과 성인애착, 데이트 폭력의 관계. **모래놀이치료연구, 6**(2), 67-87.

노충래(2002).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3,** 123-154..

박서정, 김순옥 (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 조절 능력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35-53.

박혜경 (2001).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장혜인(2010). 자기조절적 기질로서의 통제노력: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학회지: 발달, 3**(3), 19-35.

전선영(2000).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성 아동의 사 회정보처리와 행동특징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지영 (2011). 소년원 남자 청소년의 불안과 공격성의 관계: 행동활성화체계(BAS), 행동억제체계(BIS)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지영 (2001). 공격신념, 사회정보처리,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행동 간의 관계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아름, 방희정 (2011). 아동의 만족 지연 능력과 주의 기제: 집행 주의 및 주의분산책략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1), 39-57.

이지연, 곽금주 (2010). 5세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의 예언변인들: 종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85-102.

이지영 (2012). 연령증가에 따른 정서조절의 차이: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783-808.

유리향 (201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초등학생의 괴롭힘 간 관계: 정서조절과 공감의 중다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지경(2006).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정서지능과 정서조절의 비교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인숙(2009).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내적요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영숙(2010).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통제의 매개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Adam, K. S., Sheldon Koller, A. E., West, M. (1995). Attachment organization and vulnerability to loss, separation, and abuse in disturbed adolescents. In S., Goldberg, R., Muir, & J., Kerr(Eds.), *Attachment Theory: Social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pp. 309-341). Analytic Press.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s of Psychology, 53,* 27-51.

Burn, E. E., Jackson, J. L., Hilary, G., &

Harding, H. G. (2010). Child maltreatment, emotion regul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The impact of emotional abus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 801-819.

Cicchetti, D., Ackerman, B., & Izard, C. (1995).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1-10.

Chang, H., Olson, S. L., Sameroff, A. J., & Sexton, H. R., (2011). Child effort control as a mediator of parenting practices on externalizing behavior: Evidence for a sex-differentiated pathway across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schoo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1), 71-81.

Cook, A., Spinazzola, J., Ford, J., Lanktree, C., Blaustein, M., Cloitre, M.. Olafson, E., & vander Kolk, B. (2005). Complex Trauma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iatric Annals, 35,* 390-398.

Connor, D, F., Steingard, R. J., Anderson, J. J., & Melloni, R. H. Jr. (2003). Gender difference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3*, 279-292.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Crick, N. R., & Dodge, K. A. (1996).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 o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115,* 74-101.

De Bellis, M. D. (2001). Developmental traumatology: The psychobiological development of maltreated children and its implications for research, treatment, and polic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 539-564.

De Castro, B. O., Merk, W., Koops, W., Verrman, J. W., & Bosch, J. D. (2005). Emotions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ir relations with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referred aggressive boy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 105-116.

Dodge, K. A. (1993). Social cognitive mechanisms in the development of conduct disorder and dep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559-584.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0).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50.* 1678-1683.

Dodge, K. A., Lochman, J. E., Harnish, J. D., Bates, J. E., & Pettit, G. S. (1997).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school children and psychiatrically impaired chronically assaultive yout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7-51.

Dodge, K. A., & Frame, C. L. (1982). Social cognitive biases and deficits in 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53,* 620-635.

Dodge, K. A., Pettit, G. S., Bates, J. E., & Valente, E. (1995).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patterns partially mediate the effect of early physical abuse on later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4), 632-643.

Dodge, K. A., Pettit, G. S., McClasky, C. L., & Brown, M. (1986).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2),* 1-84.

Dutton, D. G. (1999). Traumatic origins of intimate rag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4), 431-447.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 (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136-157.

Eisenberg, N. Smith, C. L., Sadovsky, A., & Spinrad, T. L. (2004). Effortful control: Relations with emotion regulation, adjustment, and socialization in childhood. In R. F. Baumeister & K. D. Vohs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pp. 259-282). New York: Guilford.

Eisenberg, N., & Spinrad, T. L. (2004). Emotion-Related Regulation: Sharpening the Definition. *Child Development, 75*(2), 334-339.

Eisenberg, N., Zhou, Q., Spinrad, T. L., Valente, C. Fabes, R. A., & Liew, J. (2005). Relations among positive parenting,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proble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6*(5), 1055-1071.

Ford, J. D. (2005). Treatment implications of altered neurobiology, affect regula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following child maltreatment. *Psychiatric Annals, 35,* 410-419.

Ford, J. D., Fraleigh, L. A., & Connor, D. F. (2010). Child abuse and aggression among seriously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9*(1), 25-34.

Gross, J. J. (2008). Emotion regulation. In M., Lewis, J. M., Haviland-Jones, & L. F., Barrett(Eds.), *Handbook of Emotion*(pp. 497-512). New York: Guilford.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 377-391.

Hubbard, J. A., McAuliffe, M. D., Morrow, M. T., & Romano, L. J. (2010).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recursors, outcomes, processes, experiences,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78*(1), 95-118.

Jaffee, S. R., Caspi, A., Moffitt, T. E., & Taylor, A. (2004). Physical maltreatment

victim to antisocial child: evidence of an environmentally mediated proc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1), 44-55.

Kempe, C. H., Silverman, F. N., Steele, B. F., Droegemueller, W., & Silver, H. K. (1962). The Battered-child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81*, 17-24.

King, S. M. (1999). Escape-related behaviours in an unstable, elevated and exposed environment. Long-term sensitization after repetitive electrical stimulation of the rodent midbrain defence system. *Behavioral Brain Research, 98,* 127-142.

Kim, J. & Cicchetti, D. (2010). Longitudinal pathways linking child maltreatment, emotion regulation, peer relation,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51*(6), 706-716.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Kochanska, G., Murray, K.,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 220-232.

Lee, V., & Hoaken, P. N. (2007). Cognition, emotion, and neurobiological development: Mediating the relation between maltreatment and aggression. *Child Maltreatment, 13*(3), 281-198.

Lemerise, E. A., & Arsenio, W. F. (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 and cognition in socila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1), 107-118.

Lonigan, C. J.,, & Phillips, B. M. (2001). Temperamental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anxiety disorders. In M. W. Vasey, & M. R. Dadds(Eds.) The developmental psychophathology of anxiety (pp. 60-91). New York: Oxford Unuiversity Press.

Lynch, M. & Cicchetti, D. (1998). An ecological-transactional analysis of children and contexts: The longitudinal interplay among child maltreatment, community violence, and children's symptomatology. *Developmental Psychology, 10,* 235-257.

Marsee, M. A., & Frick, P. J. (2007). Exploring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orrelate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a sample of detaine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969-981.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rating scale. University of New Orleans.

Meersters, C., Muris, P., & van Rooijen, B. (2007). Relations of neuroticism and attentional control with symptoms of anxiety and aggression in non-clinical children. *Journal of Psychopathological Behavior Assessment, 29*, 149-158.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Sessa,

F. M., Avenevoli, S., & Essex, M. J. (2002). Temperamental vulnerability and negative parenting as interacting predictors of child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461-471.

Muris, P. Meesters, C., & Rompelberg, L. (2006). Attention control in middle childhood: Relations to psychopathological symptoms and threat perception distor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997-1010.

Muris, P. Meesters, C., & Blijlevens, P. (2007). Self-reported reactive and regulative temperament in early adolescence: Relations to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and "Big Three" personality factors. *Journal of Adolescence, 30*, 1035-1049.

Muris, P., & Ollendick, T. (2005). The role of temperament in the etiology of child psychopathology,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8*(4), 271-289.

Pollak, S. D., & Kistler, D. J. (2002). Effect of early experience on children's recognition of facial displays of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8,* 784-291.

Robinson, L. R., Morris, A. S., Heller, S. S., Scheeringa, M. S., Boris, N. W., & Smyke, A. T. (2009). Relations between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in young maltreated children in out of home care. *Journal of Child Family Study, 18*, 421-434.

Rueda, M. R., Posner, M. I., & Rothbart, M. K. (2004). Attentional control and Self-regulation. In R. F. Baumeister, & K. D. Vohs(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pp. 283-300). New York: Guilford.

Scarpa, A., Haden, S. C. & Abercromby, J. M. (2010). Pathway linking child abuse, depression, and aggressiveness across gender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010, 19, 757-776.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06-916.

Shields,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al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5.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Straus, M. A., Hamby, S. L., Finkelhor, D. F., Moore, D. W., & Runyan, D.(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4), 249-270.

Taft, C. T., Kaloupek, D. G., Schumm, J. A., Marshall, A. D., & Panuzio, J. (2007).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physiological reactivity, alcohol problem, and aggression among military vetera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3), 498-507.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u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van der Kolk, B. A. (2005). Developmental Trauma Disorder. *Psychiatric Annals, 35*(5), 401-408.

Walton, A. & Flouri, E. (2010). Contextual risk, maternal parenting and adolescent externalizing behaviour problems: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6*(2), 275-284.

Wilkowski, B. M., & Robison, M. (2010). The anatomy anger: An integrative cognitive model of trait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78*(1), 9-38.

1차 원고 접수: 2013. 07. 12.
수정 원고 접수: 2013. 08. 31.
최종 게재 결정: 2013. 09. 08.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3. Vol. 26. No. 3, 19-45

The Mediating Effects of Effortful Control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buse Experience and Reactive Aggression.

Hee-Soon Jang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s of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physical abuse and reactive aggression. Emotion regulation was operationally defined as effortful contro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examine the overal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of interest. Data was obtained from 1,197 elementary school students belonging to 5th- and 6th-grade who met specific criteria for physical abuse. Results indicated that children's experience of physical abuse directly affected reactive aggression. The direct effect of physical abuse on reactive aggression was greater than the total indirect effects of other variables. Both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effortful control served as mediator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buse and reactive aggression. Additionally, the mediating effect of effortful control was greater than that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effortful control appeared to influence all three stages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Based on these findings,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are discussed for decreasing reactive aggression among physically abused children. The implications of a newly identified concept related to effortful control were also emphasized.

Key words: physical abuse, reactive aggressio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effortful control